

# '진안고원물' 연 매출 30억원 달성 원예특작 분야 지원 나선다

### 출범 4년 만에 매출 3배 성장... 공공형 온라인 유통 성공 모델 안착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물'이 2025년 연 매출 30억원을 달성하며 공공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공 모델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 진안고원물은 지난 2022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개설된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이다.

출범 초기에는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됐으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판로 확대로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연도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0억 원 △2023년 13억 원 △2024년 25억 원 △2025년 30억 원으로 출범 4년 만에 매출 규모가 3배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진안고원물에는 138개 농가가 참여해 446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진안군 직영 쇼핑몰을 중심으로



진안고원물 홈페이지

전북 우정청, 엔드마켓 등과의 제휴를 통해 다각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도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진안고원물은 누적 매출 500억 원을 돌파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진안군 농산물 유통을 이끄는 양대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안군은 앞으로 진안고원물을 단순한 지역 쇼핑몰을 넘어 전국 단위 공공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 농가 확대와 품목 다양화, 공동 브랜드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진안고원물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판로를 잃을 위기에 놓였던 농가들의 절박함이 모여 만들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 유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19개 분야 총사업비 15억원 투입

무주군이 2026년 원예특작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19개 사업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천마 자재 지원을 비롯해 △포도(머루) 재배시설 지원, △딸기 상토 지원, △사과 방사필름 지원, △북분자 농자재 지원, △인삼 농자재 지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흑미 수박 육묘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과수 저온 피해 예방제 지원과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 등 2개 사업이 올해 새롭게 추가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일부 사업의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됐다. 천마 자재 지원의 경우 상토가 포당 7천2백 원에서 7천7백 원으로, 종균은 병당 1,750원에서 2천 원으로 인상됐다.

포도(머루) 및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은 개량형 비가림시설 기준 ㎡당 4천5백 원에서 5천 원으로 상향됐



며, 딸기 상토 지원 역시, 포당 6천 원에서 6천5백 원으로 올랐다.

복숭아 농자재 중 교미교란제는 기존 면적 당 방사에서 봉지당 7만 원 지원으로 변경됐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은 약제를 기존 8종에서 제품에 관계 없이 제형별 단가를 적용하도록 개설했다.

흑미 수박 육묘 지원 단가도 주당 1,250원에서 1천3백 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필지에서 지원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오는 1월 23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확대·운영 개선

진안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 2026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 기준을 개선해 상반기 농자재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이자율을 연 1.5%에서 1.0%로 인하한 이후, 증가한 농자재 수요에 대응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후속·보완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2026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사업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해, 저리 농자에 대한 농자재 수요 증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 이후 장기간 농자가 실행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연말까지 실행' 하던 기준을 개선

해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자재 실행으로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회계정리를 높였다.

이울러 중복·편법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수혜자는 최종 상환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부부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간주,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로 농자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출자자 개인·법인은 동일 사업장에 대해 중복 농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2026년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농자사업은 1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23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LED 조명 설치, 노후 창호 교체, 난방 보일러 정비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비롯해 방범 안전경비 설치, 주방·화장실 개보수 등 주택 내외 전반에 걸친 생활환경 개선이다.

군은 올해 복권기금과 군비를 각각 절반씩 투입해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16가구를 선정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시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K-관광수도 무주 발전 위해 최선"

### 무주군, 노창환 부군수 부임

무주군은 노창환 부군수가 지난 2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노창환 부군수는 1991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채 지방보건의료과로 임용돼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안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보건의료과장 등을 역임했다.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는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기쁘고 무주발전을 위한 중



책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무주가 세계적인 관광도 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온

만큼 부군수로서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정의 문턱을 낮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동료 공직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중심의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공직자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 군민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군수님, 동료 여러분과 마음 맞춰 최선을 다하고 가장 먼저 발로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빠망이에게 소원을 말해봐' 새해 이벤트

진안군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빨간 말의 해'를 맞아 군 대표 캐릭터인 '빠망이'를 내세워 특별한 새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빠망이에게 소원을 말해봐'라는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진안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빠망이'의 정체성이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찬 새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안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진안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2026년 새해 소원을 댓글로 작성하고, 네이버폼을 통해 인증샷과 참여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증정한다. 경품 규모는 △3만원권(10명) △2만원권(10명) △1만원권(80명)이며, 당첨 결과는 23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새해 소원을 빌기 좋은 지역 명소로 마이산을 바라볼 수 있는 부귀산 정상과 성피산, 용담호와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태고정(망향의



동산)을 함께 추천하며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올해 '진안 방문의 해'와 도민체전 개최를 맞이해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 관내에서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공공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운영 중인 사업자로, 숙박요금 게시, 사업장 표시판 설치, 소방·안전시설 기준 준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규모는 총 2억 원(군비 50%, 지방비 50%)이며, 선정된 민박업소는 개소수 총사업비 2천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객실·화장실·주방 등 내부 공간 개·보수, △안전난간·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민박 간판, 외부경관, 실외 조명 등 영업 관련 시설 개선이며 TV·침대 등 단순 물품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군은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인센티브 지원

장수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장수군에 주소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총 33명을 선정해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캐мп인